

「‘문병란시인기념사업회’ 이명환 회장 만나보니

“사회 ‘비판정신’ 강했죠…늘 저항성 견지”

군부독재 민주주의 파괴하자 반골기질 민중문학 추구

내달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10주기 시선집 구상도

엄혹한 군부정권 시절 민중가요로 널리 불리워진 시 ‘직녀에게’의 창작자이자 군부독재 시절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민중 시인으로 현대시문학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전남 화순 출생 문병란 시인(1935~2015·전 조선대 교수)이 지난 10주년을 맞았다. 시집 ‘땅의 연가’와 ‘정당성’, ‘죽순밭에서’, ‘무등산’, ‘양귀여 양귀여’를 망라해 시집과 시선집 26권을 펴내는 등 투사 시인으로 활동한 문 시인은 1988년 제도권 교육에 돌아와 정년할 때까지 투쟁의 현장에 머물렀다. 그의 사후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를 기리는 모임이 언급된 가운데 그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은 유지들을 중심으로 2020년 말 ‘문병란시인기념사업회’가 결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첫 진보문학 태동을 알렸던 광주전남민중문학인협회의회의 주축이었던 3인방(문병란·송기숙·이명환) 중 한명인 원로 소설가 이명환씨(94)가 회장을 맡고 있다. 올해 문

시인의 10주기를 맞는 그의 소회는 남다르다. 이 회장은 2022년 5월 문병란시인기념사업회,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공동주최 아래 ‘조선 저항시인과 탈식민주의’라는 타이틀로 ‘한일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오는 5월 18일에는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전남작가회의,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열 방침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일제시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가해행위를 비판하고 성찰한 양심적 작가 마쓰다 도키코(1905~2004)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일본의 학자들이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시인 문병란과 마쓰다 도키코를 비교문학 관점에서 논하는 발표와 함께 문병란의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문병란시인기념사업회가 서서히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문병란 시인 10주기를 앞



이명환 회장

두고 지난 8일 오후 이명환 회장과 만나 향후 기념사업회의 활동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회장은 문 시인 및 송 교수와 함께 서울보다 한발 더 빨리 민족문학 가치를 내건데 대한 자부심

을 내비쳤다. 보수 문학단체와 결을 달리해야 했기에 민족과 통일을 핵심 담론으로 내세워 셋이서 공동대표를 맡는 것으로 하고, 진보문학 단체의 출범을 알렸다고 한다. “처음에 문 시인은 시 ‘가로수’ 등 서정적인 시를 썼어요. 민족정신이나 전통적인 유무형 유산 등을 시적 소재로 서정시를 창작했지만 군부독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돼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민중문학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전 지켜본 문 시인은 사회 비판정신과 저항정신이 강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늘 저항성을 견지하곤 했죠.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나중에 자기 노선에 대한 자성을 했지만 그 전에는 문 시인을 너무 진보적이라고 한 적도 있었지요.” 이 회장은 문병란시인기념사업회 결성 후 생전에 문병란 시인이 추앙하던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이상화, 심훈, 조병희 등 민족시인들의 시 모음집을 우리말로 일본어로 묶어 펴낼 때 백낙청 선생(전 서울대 교수), 민영돈 조선대 전 총장,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 등이 기념사업회 고문으로 동참해 협력을 아끼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큰 힘이 됐다고 말

했다. 이 회장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가 탄탄하게 본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한다면서 우선 10주기를 맞는 의미를 살려 그의 대표시를 엄선, 시선집을 펴낼 구상을 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주옥같은 작품들을 모아 시선집을 펴내는 게 시인 문병란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추모에 걸맞는 선양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출판비용 등 마련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문 시인의 대학 제자들이나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논의해보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시선집 출간을 생각할때는 기념사업회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5월 행사도 잘 치러내야 하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지지를 해 주시면 어려운 일 하나 하나 풀려가지 않을까요.”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5·18민중항쟁을 맞아 열릴 국제심포지엄 때 문병란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외국인 참여답사객들과 함께 시인의 시를 되새기면서 국립5·18민주묘지에 자리한 시인의 묘지를 참배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어린이·예술가 함께하는 창작 실험실

ACC재단, ‘어린이창작실험실 프로그램’ 오감자극 놀이 자기주도 교육 13종 구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ACC재단, 사장 김선옥)은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025 어린이 창작실험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창작실험실 프로그램’은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한 다양한 놀이와 창작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감자극 놀이, 가족과 교감하는 예술 워크숍 등 여러 방식의 자기 주도적 예술 창작 교육 13종으로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로봇과 함께 운동회를 하거나 인공지능(AI)과 아시아 문화 여행을 하는 등 실험적 예술창작 활동을 경험하고, 가족과 예술로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하는 ‘축하해, 너와 나의 첫 스텝’-우리는 1학년’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설레는 첫출발을 춤으로 표현하며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6~9세를 대상으로 하는 ‘내 손을 잡아줘’는 미리 진행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혜정 작가의 ‘미술+몸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미술과 몸을 활용해 가족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상설 프로그램인 어린이 가족 창작라운지 ‘뽕글 뽕글 포로록 소망 연구소’에서는 전시 공모 작가와 연계해 작품을 관람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미술 체험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으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모카가든과 함께 하는 ‘MOKA와의 숲 여

행’은 해상 위의 알프스라 불리는 일본 야쿠시마의 신비한 원시림으로 여행을 떠나며 자연 생태계를 탐험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어린이놀이터 ‘다키다키’의 몽글한 촉감놀이터 연속 기획물인 ‘궁극의 케이크 공장’에서는 점토로 케이크를 만드는 오감 자극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색다른 직업을 탐색해 보는 ‘내 맘대로 도서관’, 전당 공간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ACC 어린이 해석사’, 예술가의 실험적 작품을 살펴보고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 표현 방식을 체험하는 ‘수상한 예술’ 등의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각 강의로 유·무료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ACC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생명·인간성 회복 위한 ‘마음 수양’ 설파

김한호 에세이집 ‘마음의 꽃’ 출간

수필가 김한호씨가 에세이집 ‘마음의 꽃’(북나비)을 최근 펴냈다. 마음 수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이 에세이집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마음 수양을 통해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에 대한 회한을 다독이며 또 다른 삶의 에너지와 연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음 수양의 가치를 강조한다. 제6장으로 구성된 이 에세이집은 분주한 일상 틈틈이 메모해온 저자의 개성적 시각과 문체가 투영된 60여편의 수필작품이 실렸다. 특히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 수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전파한다. 저자는 “독자들이 에세이들을 읽고 공감하는 한



편, 감동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필과 문학평론에 주력해온 김한호 작가는 ‘한국수필’로 등단, 저서 ‘슬픈 시인의 노래’, ‘춤추는 꽃’, ‘백조문학의 이해’, ‘행복한 삶을 위하여’, ‘광주전남문화동사’(공저), ‘수필의 창작과 비평’,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비 오는 날의 행복’, ‘하늘 메아리’, ‘21세기 한국교육 희망을 말하다’(공저,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최우수도서), ‘마음의 꽃’ 등 다수를 출간했다. 세종문학상과 공무원문학상, 광주문

학상, 국제PEN광주문학상, 올해의 작품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 중·고등학교 재직된 교육자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금연 교육

광주과학관, 특별전 어린이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은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배우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담밴드의 튜튼섬 모험’ 특별전을 오는 6월 8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과학관에서 진행한다. 유아기 흡연위해 예방을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

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현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와 협력해 추진한다. 관람객이 동화 속 주인공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흡연 위해성 관련 다양한 체험을 통해 주도적으로 금연과 건강, 그리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요’, ‘담배 연기를 만나면’ 등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체험형 전시물 10종을 통해 스스로 흡연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